

한겨레신문

국방부, 예산삭감 반발

90.8.22

7조3천억 책정에 당정협의 불참 움직임

91년도 국방예산 규모가 국방부의 당초 요구액인 7조8천3백억원 보다 5천86억원 정도 삭감돼 최종 조정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21일 “내년도 국방예산이 올해 예산규모에 비해 10.4% 늘어난 데 그친 7조3천2백41억원으로 책정됐다고 경제기획원이 알려왔다”고 밝히고 “이 액수는 국방부가 최종적으로 제시한 18% 증액을 보다 무려 7.6%포인트나 낮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기획원칙과 다시 협의, 국방예산의 구체적인 삭감항목을 재고토록 요청할 방침이다 만일 재협의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내년정부예산총규모의 확정을 위해 22일 열릴 예정인 당정협의 참석을 거부할 것으로 알려졌다.